



일본, 폐플라스틱 연료사용 개시 神戶製鋼所 총 10억엔 설비투자

일본의 神戶製鋼所는 加古川製鐵所 3호 고로 및 자가발전 설비용 6호 보일러에서 산업폐기물계 플라스틱(폐플라스틱)을 연료로서 사용하는 기술을 확립, 얼마 전 6호 보일러에서 사용을 개시했다. 3호 고로에서는 내년 2월부터 사용을 개시할 예정이며, 사용량은 연간 1만7천톤(3호 고로 1만톤, 6호 보일러 7천톤)을 예정하고 있다. 폐플라스틱의 사용과 관련하여 사전 처리설비, 고로에의 투입설비 등 10억엔의 설비투자를 실시했다. 철강업계에서는 재작년에 개최된 COP3 회의의 결과에 기초하여 2010년까지 90

년 대비 10%의 에너지 절약 목표를 설정했으며 그 중에서 1.5%는 폐플라스틱 등 미이용 에너지를 활용하기로 결정하고 있다.

한편 연간 880만톤 정도 발생하고 있는 폐플라스틱은 약 70%가 매립 및 소각 등의 방법으로 처리되고 있는데, 매립지의 부족, 소각로의 다이옥신 대책 부담의 증가 등으로 안전하고 대량으로 처리하는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神戶製鋼所는 98년 4월부터 석탄(코크스) 대체연료로서 제철소에서의 폐플라스틱 사용기술의 개발을 추진하는 동시에 關西圏에서의 폐플라스틱 발생량·품질 등의 시장 조사를 실시해 왔다. 그 결과 기술적·시장 면에서 加古川製鐵所 3호, 6호 보일러에서의 사용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日本製鋼所,
사출성형기 사업 전용 홈페이지 개설**

日本製鋼所는 유저가 기종을 선정·검토할 수 있는 사출성형기 사업의 전용 홈페이지를 개설했다. 인터넷을 통해 플라스틱 성형의 사출용량 등으로부터 기종을 선정할 수 있는 한편 성형 조건 및 생산품의 검토도 행할 수 있다.

인터넷 주소는 <http://www.jsw.co.jp>이며 스페셜 페이지의 성형기 시스템을 클릭하면 된다.

**유럽연합, PVC장난감 판매금지 촉구
유해물질 배출 원인**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10일 아기의 치아 발육을 촉진하기 위한 PVC 장난감이 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으로 밝혀졌다면서 이들 제품의 판매를 즉각 금지할 것을 촉구했다.

집행위는 치아 발육을 촉진하기 위한 고리와 인형, 딸랑이 등을 만드는데 사용되는 연성(軟性) PVC를 아기가 물고 있을 때 건강에 심각한 위협이 되는 '프탈라테스'라는 화학물질이 배출된다고 밝혔다.

집행위는 프탈라테스는 간과 신장, 고환에 해를 끼치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PVC를 부드럽게 만드는데 사용되는 프탈라테스는 특히 이가 돋아나고 있는 아기가 연성 PVC 장난감을 장기간 물거나 씹을 때 위험할 정도로 많은 분량이 배출됐다고 밝혔다.

집행위는 연성 PVC 장난감의 판매금지 조치가 다음 달 중순부터 시행될 것이며 이같은 긴급 조치와 함께 치아 발육 촉진용 장난감에 프탈라테스의 사용을 영구적으로 금지시키는 방안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Theis사, 월드스타상 수상
정제 약품 외포장 부문**

Theis사는 정제 카톤포장을 개선해 월드스타상을 수상했다. 이 회사의 아이디어는 반복하여 카톤을 개봉하는 것과 블리스터 포장의 보존과 주요 정보를 잃는 단점을 개선한 것이다.

Theis사는 이 제품을 제약회사에 독점공급하고 있는데 블리스터 포장의 장점은 포켓에 넣어 가지고 다닐 수 있는 점이다.

기능을 보면 여러 번 개폐가 가능하도록 고정 접착테이프와 PET 재질의 잠금 뚜껑 디자인을 채용하고 있다.

사용자는 처음 포장이 열렸는지 주의하고 작은 형태의 책모양으로 포장되어 왼쪽에 제품 사용설명서가 인쇄되어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Theis사의 블리스터 포장은 카톤을 한면에 접착하는 형태로 정제는 카톤면 뒤쪽에서 꺼내고 블리스터를 쉽게 넣을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다. 정제포장은 카톤을 블리스터 포장에서 떼어 내도록 되어있고 포켓크기의 평면포장, 재밀폐 용기는 접히도록 생산되기 때문에 제약회사에 많은 이익을 제공한다.

이 혁신적 포장은 21회 독일포장전과 WPO로부터 월드스타상을 수상했다. [K]